



## 말씀

##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사제로 살아가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볼 때 언제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 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본래 머물던 곳’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곳을 본향(本鄉), 원래 있던 곳, 곧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별이 슬프지만 좌절하진 않습니다.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돌아가신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아버지 오른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 슬프고 쓸쓸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루카 17,21)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하느님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땅을 밟시다. 내 안에, 내 형제들 안에 살아 숨 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갑시다. 언젠가 천국 본향에서 다시 만날 그 기쁜 날을 희망하며.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



이거라(다니엘) 신부  
백두산(육군 제21사단) 상당 주일

- 제 1 독 시** 사도 1,1-11  
**회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 시** 에페 1,17-23  
**복음 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제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진리를 살다

# 미사진례 인에서의 하느님 말씀(2)

3. 성인 축일과 기념일, 예식미사, 기원미사, 신심미사, 위령미사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의 주일과 대축일, 축일과 기념일, 평일의 독서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공동체에 들어서고 힘과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전례독서 목록을 통하여 성경독서를 풍요롭게 한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생각들과 구호들, 슬로건, 그리고 유혹의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곧 이 세상에서 하느님과 맺는 공동체에 함께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신 마리아는 하느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가 된 이 대답은 신앙인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모양과 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의 전례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선사하는 이 말씀은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1) 성경의 말씀은 교회, 즉 성찬례를 위하여 모인 하느님 백성의 집회 중에 선포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는데 열중할 수 있고 또 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어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쁨의 성찬례를 늘 함께 거행하는 전례적 공동체에서 읽혀지는 하느님의 말씀은 새롭게 심오한 차원을 가집니다.

2) 봉독에는 성경의 해설이 있어야 합니다. 봉독을 위하여 특별히 불림을 받은 봉사자들의 성경 해설 및 실천을 권하는 성경 강론이 있어야 합니다. 공의회 문헌과 새 미사경본 총지침에서 강론은 우선 성경 텍스트의 해설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말씀의 힘을 생생하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이 역사하심을 일깨우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들인 직무수행자들은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내적 심향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 성경의 말씀은 성사와 비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한다면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주일 듣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마치 예리한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때도 있지만(히브 4,12-13; 신명 31,26-27 참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그 말씀으로부터 실천을 요청당하고 아마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중국적으로 늘 복음, 곧 완전한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고 또 너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 17,13 참조)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의 전례 중심 식탁인 독서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말씀 전례는 독서대에서 거행합니다. 곧 독서, 화답송, 복음, 강론, 보편 지향 기도, 부활 찬송의 본 장소는 독서대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화답송은 해설대나 신자석 또는 성가대에서, 강론은 사제석이나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보편 지향 기도는 신자석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독서대입니다. 특히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의 독서는 반드시 독서대에서 봉독해야 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58항) 그 외에 주례는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도 독서대에서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시작 예식이나 복음 또는 강론을 제대에서 하는데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신자들 역시 독서를 해설대나 신자석에서 봉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서대에서는 미사 해설이나 성가 지휘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평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복 음 록 상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 빛 속에서

그 빛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랑일 겁니다.

그 위안 속에서  
그 힘들 속에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랑일 겁니다.

그대 가는 그 길이  
사랑이시길.

상화이야기

승천하시는 예수님



페레라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카네이션(이탈리아어로 가로파노)을 그려 넣곤 해서, 가로팔로라는 별명이 붙은 이 화가는, 학자들이 ‘목가적인 화풍’을 가졌다고 평하곤 했다.

상단부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몸은 창백한 대리석처럼 그려져 있고, 천상의 구름 속에는 각종 성인 혹은 예언자들이 육신이 아닌, 마치 영혼의 상태인 것처럼 투명하게 그려져 있다. (인물 중 한 명은, 모세를 상징하듯, 십계명이 적힌 것처럼 보이는 판을 들고 있다.)

중간 부분의 배경의 마을 또한, 모든 것이 창백할 정도로 푸르스름하게 그려졌고, 오직 하단에, 화면에 가깝게 보이는 제자들만이 화려한 색깔로 채색이 되어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과 손짓으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손짓들이 역동적이면서, 그러나 고요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견고하고, 근육질로 이상화된 인간의 신체 및 제자들의 단호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영속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띤, 그러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을 준다.

김은혜(갤러리시앳)

벤베누토 티시(기로팔로) 1481-1559  
1520년경 작, 패널 위 유화 314 X 204,5cm  
고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승천 대축일: 해상대 시승관 신부

◆ 교구장 동정

- 제주해군(제주기전대) 성당 사목방문  
때: 5월 28일(주일)

◆ 수녀 히게 수련회

때: 5월 30일(화)-6월 2일(금)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